

“오기도 생기지만 무조건 실력으로 증명할 것”

합류가 늦어져 동료들에게 미안하다 지금은 몸 관리·선수단 조화에만 집중 손흥민·황희찬과 유기적인 호흡 중요 내가 잘 하면 팬들도 좋게 봐 주실 것



“논란은 신경 쓰지 않고 경기에만 집중하겠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에 출격하는 한국 축구대표팀(23세 이하)에서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황의조(26·갑바 오사카)가 속마음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선수단에 합류한 6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하루빨리 털어버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의조는 김학범(58) 감독이 최종엔트리 발표를 발표한 직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실력 대신 김 감독과의 인연 덕분에 와일드 카드로 뽑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두 사람은 성남FC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제지간의 정을 나눈 바 있다. 이에 김 감독은 “최종엔트리는 학연과 지연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듯 황의조는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불씨가 될 만한 발언을 최대한 삼가는 모습이었다. 황의조는 “주변에서 나를 둘러싼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몸 관리와 선수단 조화에

만 집중할 생각이다”고 입을 열었다. 오기가 생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팬들께서) 좋게 봐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교롭게도 황의조는 최종엔트리 발탁 이후 더욱 물오른 공격력을 뽐내고 있다. 올 시즌 J리그에서 9골을 터뜨리며 감각을 끌어올렸다. 합류 전 마지막 경기였던 5일 나고야 그램퍼스 원정에서 침묵했지만 앞선 1일 주빌로 이와타전에서 9호골을 기록했다.

황의조는 “합류가 늦어져 동료들에게 미안하다. 빠른 시간 안에 선수들과 어우러져야 한다. 훈련을 통해 서로 알아가겠다”면서 “특히 손흥민(26·토트넘)~황희찬(22·잘츠부르크)과 호흡을 잘 맞추면서 유기적인 플레이를 펼쳐야 한다. 서로 공간을 열어준다 보면 좋은 찬스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별리그 일정 변경으로 출국일을 11일로 늦춘 김학범호는 해외파 공격수 이승우(20·베로나)와 황희찬이 조기합류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손발을 맞추게 됐다. 당초 현지에서 합류하기로 했던 둘은 8일 파주 NFC에 조기 입소한다.

6일 파주스타디움에서 훈련을 지휘한 김 감독은 “짧은 기간이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조직력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파들의 조기합류는 다행스럽다. 특히 지금부터 합류하는 해외파들은 모두 큰 힘이 되는 선수들이다”고 흠뻑했다.

파주 | 고봉준 기자 shoutout@donga.com



대회 2연패를 노리는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 축구대표팀의 '뜨거운 감자'는 황의조다. 발탁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일었다. 황의조는 6일 경기도 파주 NFC에서 훈련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파주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내가 왜 떴게?

황민현 팬들의 초광폭 스케일



●워너원 황민현, 생일 TV광고 : 통이 커도 제대로 컸다. 워너원의 황민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생일선물이 되었을 것이다. 팬들이 황민현에게 선물한 것은 시계도 지갑도 아닌, 광고. 황민현의 생일을 축하하는 TV광고는 4~5일 MBC '복면가왕' 등 인기 프로그램 방송 전후에 송출됐다. 생일인 9일에도 '라디오스타' 본 방송에 나갈 예정이다. 라디오도 있다. 8~9일 KBS 쿨FM '악동뮤지션 수현의 불뿔을 느껴요'에 축하광고가 나간다. 타임스퀘어, 공항, 지하철 등에서도 황민현의 생일축하광고를 볼 수 있다. 워너원 멤버들 중에서도 생일축하 TV광고는 황민현이 처음이라고. 생일 축하해요. 팬들의 통큰 사랑, 평생 갖고 사시길.

광고주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델



●과자에 묻힌 헨리 : 헨리가 중국 소속사인 헨리공작실 웨이보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눈길을 끈다. 사진 속의 헨리는 산더미처럼 쌓인 과자 봉지에 파묻혀 눈을 감은 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꿀통에 빠진 꿀들이 푸우 같기도 하다. 이 과자는 한국 제과 브랜드의 중국 시판 제품으로 헨리가 광고모델을 맡고 있다. 헨리는 사진과 함께 “정말 맛있어요. 특별히 말하는데, 얼른 맛보세요”라는 글도 적었다. 제품명이 중국어로 적혀 있지만 누리꾼들은 대번에 이 과자를 알아봤다. 한국에서는 '포O칩'으로 불리는 과자다. 자신이 광고하는 제품을 평소에도 이렇게 열심히 알리는 헨리. 내가 기업체 회장님이라면 당장 계약을...

셋! 득남했어



●정동하 득남 :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정동하가 득남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미 올 봄에 득남해 결혼 4년 만에 아빠가 됐다고 한다. 이렇게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이유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 정동하 본인이 주변에 크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동하는 8년 동안 만난 첫사랑과 2014년에 결혼했는데, 결혼식도 가족, 친지, 가까운 지인들만 초청해 조용히 올렸다. 득남을 축하합니다. 봄에 득남했는데 여름에 축하인사를 전하게 되었군요.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평균자산 23억원·연소득 2억3000만원 돼야 '한국 부자'

KB경영연구소 '2018 한국 부자 보고서'

금융자산 10억 이상 27만 8000명 서울 44%·경기 21%·부산 6.6%순 부동산 운용 53%·주식 보유 감소 “은퇴 후 삶 위해 월 660만원 필요”



‘평균 자산 23억원, 10명중 4명은 서울 거주. 부동산 자산은 늘린 반면 주식은 절반 이상 매각. 암호화폐 투자경험은 많으나 향후 투자는 부정적.’ KB금융지주(회장 윤종규) 경영연구소가 6일 발표한 ‘2018 한국 부자 보고서’에 나온 부자들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및 기타 실물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정한 ‘한국 부자’는 2017년 말 기준 27만 8000명. 전년의 24만2000명과 비교해 3만

자산 구성비의 변화 추세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만2000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도 5만9000명으로 21.3%, 부산이 1만9000명으로 6.6% 3위를 차지했다. 서울과 부산의 부자 비중은 줄어든 반면, 경기도는 전년의 19.3%에서 21.3%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에서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하는 사람은 4만3000명으로 전체

의 35.6%가 몰려 있었다. 경기도의 부자 수 상위 3개시(성남·용인·고양) 비중도 42.2%에 달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모두 이들 지역의 집중도가 이전 조사보다 조금 완화되는 경향을 띠었다.

한국 부자의 자산운용 실태를 보면 부동산이 총자산의 53%로 금융이나 기타자산에 비해 높았다. 2012년 이후 한동안 부동산자산 비중은 하락하고 금융자산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 들어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부동산자산 비중이 지난해에 이어 연속 상승했다. 이에 비해 주식은 지난해에 비해 시장에 대한 기대감 하락으로 비중이 크게 줄어 1년 사이 주식 보유 비중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경험은 24.3%로 일반 투자자(13.9%)보다 높았지만 향후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는 비중은 2.3%에 불과해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한편, 한국 부자는 은퇴 후 만족스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66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상속이나 증여는 사전 증여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미스터 션샤인’ 공들인 OST 성적부진...왜?

박효신·김윤아 음원강자 기용 불구 한 회당 1~2곡뿐...자주 노출 안돼 곡 흐름 중시하는 남혜승 음악감독 사극 특성 고려 마지막 장면 삽입도

김윤아, 악동뮤지션 이수현, 멜로망스 등 ‘음원 강자’들을 내세우고 곡의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작 음원성적에서는 신통치 않다는 이야기다.

드라마 음악을 책임지는 사람은 김은숙 작가의 전작 ‘도깨비’ 음악을 맡았던 남혜승 음악 감독. 당시 그의 손에 거쳐 나온 OST들은 공개되지만 하면 각종 음원차트 1위를 휩쓸며 열풍을 만들어냈다. 이런 기대감에 ‘미스터 션샤인’ 역시 그가 선보일 ‘음악 마법’에도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의외인 점은 방송에서 OST로 공개한 곡들이 자주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70분 방송 기준으로 많아야 1~2곡 정도가 전부다. 드라마가 방영될 때 자주 ‘깔아야



김은숙 작가의 앞선 드라마들에 비해 ‘미스터 션샤인’의 OST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사극 장르인 만큼 가요를 자주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 화엔터테인먼트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을 텐데도 드라마에서 음악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이 같은

설정에는 음악 감독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ST는 절대 드라마 내용과 흐름에 방해가 되서는 안 된다. 또 배우들의 목소리와 충돌해 대사를 묻히게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미스터 션샤인’이 사극이라는 점에서 가요를 자주 선보이지 않는 것도 큰 이유다.

남 감독은 곡의 시대적 배경과 잘 어울리는 클래식이나 오르골 등 경음악으로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가수들이 부른 곡들은 주로 마지막 장면엔 삽입하고 드라마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을 고른다.

제작진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개된 주요 경음악들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62인 조 관현악단과 함께 녹음했을 정도로 음악에 남다른 공을 들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